**적정 주거: 유엔 전문가 첫 대한민국 실사 방문**

제네바/서울 (2018년 5월 11일) –유엔 인권전문가 레일라니 파르하가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권 실현 성과와 어려움을 살필 예정이다.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레일라니 파르하는 “방한의 주된 목적은 최취약층의 주거 조건이 국제 인권 기준 및 표준에 부합하는지, 대한민국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관련 국제 인권 의무를 다하는지 살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 조건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대도시에 저렴한 주택의 가용성 및  노숙인 수의 지속적 증가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파르하 보고관은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및 주택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와 이것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청년들과 익숙한 지역사회에 남기를 바라는 주민들을 비롯한 최취약층의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주택의 금융화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증권화 및 다양화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배경, 원인 및 결과를 조사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정부 초청으로 방한하는 파르하 보고관은 서울, 과천, 세종, 진주 및 부산을 방문하여. 여러 관계 부처, 지자체, 주택 관련 공기업, 민간 부동산 부문, 시민사회 및 학계 관계자와 대표자를 만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은 방한을 마무리하는 5월 23일 오전 10시 중구 태평로 1가 25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한조사에 따른 잠정적인 논평과 결론을 공유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은 언론 관계자만 참석 가능하다.

끝

추가 정보 및 언론 문의는 아래를 참고해주십시오.

방한 기간: Gunnar Theissen (+41 79 444 4828 / gtheissen@ohchr.org)

방한 전후: Gunnar Theissen  (+41 22 917 93 21 /srhousing@ohchr.org)

유엔 독립전문가 관련 문의는 아래를 참고해주십시오.

Jeremy Laurence – Media Unit (+ 41 22 917 9383 / jlaurence@ohchr.org)

 태그 및 공유 – 트위터([@](http://twitter.com/UNHumanRights)adequate housing), 페이스북([righttohousing](https://www.facebook.com/righttohousing%22%20%5Ct%20%22_blank))